중앙교섭속보 08호

발행일 2022년 6월 7일(화) ❙ **발행인** 윤장혁 ❙ **SNS** 페이스북 · 카톡채널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노조 요구안의 핵심이 빠진 제시안이다"

8차 중앙교섭 열어 … 사용자협의회, 금속산업 최저임금 계속 제시하지 않아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8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노조 첫 번째 통일요구 금속산별협약 57조(산업전환대응) 5항 신설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에 관한 제시안을 내놨다.

사용자협의회는 '5항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라는 안을 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 두 번째 통일요구 금속산별협약 31조(위험성 평가) 전부 개정, 신설 가운데 '3항 회사는 잠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유해위험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 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2. 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사항 심의·의결한다. 3. 본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에 대해서도 안을 제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3항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사 동수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기구,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장에서 결정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회사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라고 안을 냈다.

사용자협의회는 8차 교섭에서도 중앙교섭 요구 가운데 금속산업 최

저임금 요구에 대한 안을 내지 않았다.

협의회는 두 번째 중앙교섭 요구 금속산별협약 42조(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개정, 신설 가운데 '3항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 (신설)' 에 대해, '3항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제시안을 제출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에 대해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이 산업전환 대응 통일요구 제시안이 노조 요구와 97% 정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는데, 요구 핵심인 '조합과 합의한다' 라는 문구가 빠졌다" 라고 지적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노조 요구안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노동조합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한다고 하는 의미다" 라면서 "그러면 깔끔하게 원안대로 수용하는 게 맞다" 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위험성 평가 제시안도 노조 요구보다 많이 부족하다. 특히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아직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요구의 핵심은 '1항 회사는 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라는 적용 대상의 범위다" 라며 "핵심 요구 조항이 빠진 3항을 제출했다. 추가 제시안이 없으면 오늘 합의가 어렵다" 라고 제시안을 반려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와 '합의하에 추진한다' 는 약간의 문구 차이가 있다" 라며 "다만 교섭을 거듭하면서 조합이 요구안을 설명하고, 협의회가 낸 제시안에 관한 평가를 들으면서 문구를 점점 이해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사용자협의회도 42조 개정 신설 요구 중 1항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항으로 본다" 라면서 "적용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요구대로 합의하면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회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접근해보려고 3항을 제출했다" 라고 설명했다.

9차 중앙교섭은 6월 14일 민주노총 안산시지부 회의실에서 연다.